

이일섭의 The Page

그 순간이 남기고 간 여운

상황은 한순간에 일어나고 동시에 예기된다. 그리고 그 순간은 얼어붙은 듯 조용하지만 지극히 운명적이고 치명적으로 뜨겁다. 라이언 슈나이더의 그림은 바로 그 순간에 대한 예민한 의식이다.

라이언 슈나이더(Ryan Schneider)의 그림 'Half Full Half Empty'와 'Hide Out'은 순간에 대해 얘기한다. 기나긴 생 가운데 불현듯 튀어 오르는 응축된 한순간의 강도와 밀도에 관해 끊임없이 읊조리면서, 그림들은 순간이라는 의미 지점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들고 있다. 노년의 수련에 관해 바슬라르는 이렇게 썼다. '수련은 여름 꽃이다. 그것은 여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만개한 여름 꽃은 역설적이게도 여름의 끝, 결국은 자신의 끝을 알리면서 그토록 한껏 만개해 있다. 피어 있는 수련은, 앞으로는 더 이상 피어 있지 않을 자신의 미래까지도 알고 있는 것이다. 피어남을 통해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 지금 존재하는 자신과 앞으로 사라져버릴 자신을 한꺼번에 체현(體現)하는 수련. 그 수련은 우리가 체현하는 순간-순간성의 완벽한 표상물이 아닐까 싶다. 생의 어떤 한순간은 그 이후의 시점들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큼 결정적일 수 있다. 순간이 지난 엄청난 한 재성과 현실에 압도당하는 참나. 그 순간 이후의 사태 또한 자신의 존재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상황은 한순간에 일어나고 동시에 예기된다. 순간은 그래서 얼어붙은 듯 조용하지만 지극히 운명적이며 치명적으로 뜨겁다. 라이언 슈나이더의 그림을 관통하는 것은 이 같은 순간-순간성에 대한 예민한 의식이다.

그는 자신의 기억과 일상의 모습을 찍은 사진 그리고 상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등장하는 주변 인물과 사물을 자신의 특별한 시각과 기억으로 기록한다. 현란한 색감의 물감을 두껍게 붓라 칠로 끌어낸 후 다시 그 위에 바르는 기법은 수없이 많은 손길을 요하지만, 신비롭고 놀라움에 연출된 질감과 색감은 매우 독창적이며 우리의 눈길을 끄는 빛으로 작용한다. 특히 여러 번의 오버랩 터치로 완성되는 표현 방식은 그림 속 인물과 사물의 형태를 더욱 완전하게 드러내며,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감정을 유발하게 한다. 우리는 그의 그림 앞에서 여러 정서에 휩싸인 채 자극히 사적인 공간에 드러워진 은밀하고도 괴기한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조금은 불편하고 기이하지만 그림 속 공간의 인물을 만나는 일은 묘한 흥분을 불러일으키며 그 만남의 순간을 친숙한 시간으로 변형시킨다. 라이언 슈나이더는 자신의 강하고, 기이하고, 특별한 생활을 프레임 안에 모으며 강렬하고 환상적인 그 다음 순간을 만들어 낸다. 어떤 경로를 거치든 라이언 슈나이더가 궁정하는 것은 시간의 나뉠 수평선을 일거에 끊어버리며 돌출시키는 한 순간이며 그것이 새기고 간 긴 여운의 응축이다. 라이언 슈나이더의 신작 전시 <Part of Daily Life>은 이이아트에서는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시된다. 문의 3446-3766 www.imartgallery.com



100 madameFIGARO

나가사키로 갈까! 하코다테로 떠날까!

물론 이런 행복한 고민은 하던 할수록 즐겁고 어떤 선택을 한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쿠마모토든 후쿠오카든 치산 그랜드 호텔이 있는 도시라면 어디에서든 당신의 8월 여행은 즐겁고 유익할 테니. 하지만 지금 막 오픈한 '치산 그랜드 나가사키'와 '치산 그랜드 하코다테'를 좀 더 유념해볼 것. 새롭게 오픈하는 두 호텔의 특징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랜드 플로어'를 처음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두 호텔의 '그랜드 플로어' 객실에 숙박할 경우 일본 호텔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따뜻한 세심한 배려를 풀코스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치산 그랜드 나가사키'는 JR 나가사키 역에서 도보로 단 5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나가사키 시내의 역사 유적지를 순회하는 열차 정류장과 바로 맞닿아 있다. '치산 그랜드 하코다테'는 흥종의 야경보다 더 낭만적인 하버 뷰를 감상할 수 있으며, 북극 도시의 아름다운 자연과 소박한 풍광을 감상하기에 좋은 위치 조건을 갖고 있다. 그랜드 오픈링 패키지에 관한 상세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할 것. 문의 www.SolareHotels.com www.SolareHotels.co.kr

내 이름은 레드

우리가 레드 컬러를 사랑하는 이유는 레드가 가장 반짝이고 가장 작나란한 빛깔이기 때문이다. 날카로운 키보드와 같은 레드 컬러를 통해 자신의 분명한 존재감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도시바가 새출시한 M300 로맨틱 레드를 출시했다. 레드와인을 연상케 하는 차별화된 컬러로 중무장한 이 노트북은 흑진주 컬러의 '글로시 블랙' 키보드를 장착해 우리의 디지털 감성을 순식간에 자극한다. 도시바만의 '트루브라이트' 기술을 적용한 클리어 슈퍼뷰(CSV) 액정과 14.1인치 와이드 스크린으로 깨끗하고 시원한 화면을 즐길 수 있다. 문의 www.toshiba.com 블랙 카드와 파플 카드에 이어 세븐프리미엄 카드가 출시됐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더 레드'. 세련된 '메탈릭 레드' 컬러만으로 디자인된 이 카드의 존재감을 참ભ을 만드는 당분간 없을 듯. 연회비가 무려 15만 원에 달하지만 그 빛깔과 15만 원을 훌쩍 넘는 특급 서비스가 이어지니 아까워하지 말 것. 그러나 카운터에 카드를 내미는 것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레드 컬러를 생각하면 저 없이 신성할 것. 문의 www.hyundaicard.com

